Interview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논산훈련소 수계와 위문 군포교 10년



이도경 부산지사장

종정협의회 14대 회장 및 이사장 수락 후 소임 시작
월인스님 법납 70주년 기념 제자들이 조사전 지어 봉헌
창종 22주년만에 승려 5백명, 사찰 5백개로 괄목할 성장도

"논산훈련소서 수천 명 수계식을 했을 때 그중에 10명만 불자가 나와도 저희가 군포교 하는 데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생활 때 수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 부처님을 한번쯤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대종사는 여생을 군포교에 전념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10년 남짓 군포교에 매진 중인 월인 대종사가 논산훈련소를 처음 찾은 것은 2012년경. 당시 도반인 영주 관음사 주지 도기 스님을 따라 논산 훈련소 위문을 가서 충격을 받았다. 월인 스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양손이 없는 도기 스님이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군장병 위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감화를 받았다"며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 예비 청년 불자를 양성하는 논산훈련소야말로 우리 스님들이 꼭 포교를 해야하는 곳이란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월인 스님은 이듬해인 2013년 11월 24일 대한불교 승가종 차원서 첫 수계식을 시작한 이후로 수계와 위문을 합쳐 총 14차례 정도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논산훈련소 첫 법상에 올라가서 훈련병들과 마주했을 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열정 가득한 선한 눈망울들이었지요. 해맑은 얼굴로 강당 가득 법문 들으러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며, 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간 신선한 느낌이 들어 환희심이 났죠"

그리고 월인 스님은 코르나19가 유행전 두 차례에 걸쳐 군생활 중 훈련받다 전사한 군장병과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위령재도 봉행했다. 월인 스님은 "종단 재정은 빠듯하고 후학 양성이라는 숙제도 갖고 있지만 군장병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야말로 우리사회에 불자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기에 군포교의 원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2000년도 5월 2일 부산 명륜동서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을 창립한 월인 스님은 출범 당시 승려 150명에 300여 소속 사찰로 출발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승려 숫자만 해도 500여 명에 소속 사찰도 500개에 달하는 중견 종단으로 성장시켰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월인 스님에게 수계 받은 상좌만도 양산 복천암 주지 무착 스님을 비롯해 324명이나 된다. 한국불교계에선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최근 이 상좌들이 월인 스님 법납 70주년에 맞춰 2021년 5월 승가종 총본산인 진주 승가사에 조사전을 지어 용성 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설석우 스님, 대희당 봉암대종사, 무진여당 정준 대선사와 함께 월인 대종사의 진영도 함께 봉안했다.

월인 스님은 "제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봉황이 한 마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종단을 창립해 상좌를 많이 길러내면 그 중에 봉황같은 실력있는 후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앞으로도 승가교육에 전념할 생각입니다"라며 "원래 제가 조계종 출신이라 저희 승가종도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따라가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창종 22주년을 맞은 올해를 승가종 제 2 창종 원년이라 생각하고 내실있는 종단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대한불교종정협의회 14대 회장 및 이사장을 수락하고 소임을 시작한 월인 스님은 이번 추대로 회장과 이사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다. 스님은 "이미 9, 10대 회장을 지냈기에 수차례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시절 인연으로 다시 중책을 맡게 되었다"라며 "가장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군포교와 호국영령 위령대재에 다시 원력을 모을 수 있도록 종정 스님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화종 창종 76주년 기념 법회 봉행

6월 8일 불곡사서 1천여 명 참석
정론직필 공로 本紙 감사패 수여

그동안 내홍을 겪고 최근에 안정을 찾은 탓인지 종단 주요 스님들의 각종 축사와 인사말에는 '참회와 혁신' '초발심'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6월 8일 경남 창원 비음산 불곡사에서 창종 7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창종을 기념하며 참회와 혁신으로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발원하는 자리였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초대 종정인 혜일 정각 대종사가 1946년 서울 성북동 무량사를 창건해 의천 대각국사를 종조로 창종을 선포했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한 법화종은 현재 13개 전국 교구종무원 산하에 1천여 사찰과 승려 및 신도 등 100여 만 명의 종도들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염불선으로 수행정진 중이다.

종단연혁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종정 도선 대종사의 법어로 이어졌다. 도선 스님은 "형상에 집착하는 범부의 경계를 넘어 실상을 체득하면 나고 죽음이 없는 무생 법인에 머물 수 있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면 위없는 깨달음이요, 자유자재한 해탈이며, 불생불멸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화경〉 상불경보살의 행원을 본받아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칭송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대한불교법화종은 6월 8일 경남 창원 비음산 불곡사에서 창종 7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本紙 김주일 편집국장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이어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종단의 변혁과 혁신은 참회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참다운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사부대중의 의지와 결의가 반드시 뛰따라야 한다"며 "종도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혁신과 변화로 종단 미래를 여는 길잡이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중앙종회 의장 서안 스님도 "20대 총무원 집행부에서 각 교구를 순회하며 대중공사를 통해 경청과 소통으로 원융살림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종회에서도 교구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 종헌종법의 입법 미비로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살펴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허성무 창원 시장은 "법화종은 회삼귀일의 대중교리를 봉체하고, 〈묘법연화경〉을 수행 모체로 한 법화 신앙을 널리 홍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서깊은 불교 전통 종단서 혁신을 통해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결사운동 선언은 자비가 넘치는 도시, 사람중심 창원과 그 정신이 닿아 있는 것 같다"고 축하했다.

국민의힘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특례시 성산구에 자리한 신라고찰 불곡사에서 창종 기념 법회를 봉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법화종의 대중불교 애국불교 생활불교가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갈수록 혼탁해지는 현대사회를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중에는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는데, 현대불교신문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법화종이 직면한 문제들을 공론화 하고 정론직필을 통해 감시와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정보전달에 힘쓰며 종단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현대불교신문 측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화종 종정 도선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관효 스님, 법화종 김창교구 종무원장 향산 스님, 원로의원 보명 스님, 중앙종회 의장 서안 스님, 강원교구 종무원장 서리 승일 스님, 창원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과 허성무 창원시장, 강기윤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창원 불곡사=김주일 기자

광주불교聯, 광주사찰 홍보영상 제작

2023년까지 40여 곳 홍보

광주불교연합회가 광주지역 사찰들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2023년까지 광주지역 중요사찰 40여 곳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한 이번 홍보영상은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없는 여건의 사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사찰의 역사, 문화재, 풍경, 중요행사, 주지스님 인터뷰 등을 촬영해 3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22년까지 10여 개의 사찰 영상을 사전에 제작해 10월까지 1차 공개한다.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장 무진 스님(광주 약사사 주지)은 "광주불교연합회서 활동하는 사진반 회원들이 각각 사찰을 맡아 지난 4월부터 촬영을 진행했다"며 "최근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지역사찰들이 여건이 되지 않아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초파일 행사 사진, 드론으로 촬영하는 항공영상과 사진, 사찰문화재 및 전경, 전각 사진 등이 들어간다.

사진문화기획단 윤혜숙 작가는 "사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광주 불교계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여하는 회원들도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포교활동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6회 천지명양 무차수륙대재 봉행

함안 달전사 6월 6일 개최…200여 명 운집

(사)대한불교불음원 및 함안수륙보존회가 위치한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제16회 천지명양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함안수륙보존회장 만백 스님(제주 관음사 조실)을 비롯해 칠보사 정광 스님, 달전사 원명 스님, 천관사 홍제 스님, 능인정사 남하 스님, 보문사 성광 스님, 금강선원 법기 스님, 항림사 혜광 스님, 화봉사 보현 스님, 법성사 법등 스님 등 스님들과 조용찬 함안연합신도회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타종과 법고의식, 대령, 신중작업, 괘불 이운, 도량 건립, 달전사 주지 원명 스님 봉행사, 함안수륙보존회장 만백 스님 법문, 사자단작법, 오공, 오로단작법,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상·중진공, 하위시곡, 하위수계, 회청 및 장엄염불, 봉송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달전사 원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동족상잔의 아픔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 무차수륙대재를 열고 영가왕생과 유가족 아픔을 치유하고자 한다. 영가들이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위한 구국 수호신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만백 스님은 이날 법문으로 "시방세계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수륙대재서 일체 영혼들을 감로법으로 천도하자"고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그루축제에 참가한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우리 주변에 1000그루 나무 심어요"

울산불교환경연대, 6월 5일 제2회 천그루축제 개최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백련사 주지)가 6월 5일 녹색사찰 울주 백련사 특설무대에서 제2회 천그루 축제 환경음악회를 개최했다.

환경음악회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백련사 회주 대혜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정토마을 간월사 능행 스님, 법왕사 혜경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가수 라마 외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천그루 축제행사는 여는 노래 합창을 시작으로 △황룡사 나모라 어린이합창단 공연 △백련사 향기소리 합창단 공연 △내빈 소개 △백련사 천도 스님 인사말 △울산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에코밴드 요술당나귀 공연 △송가영 국악인의 창△놀이패 동해누리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일깨워 준 코로나19"라며 "코로나로 느낀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에서 열린 도슨트 양성교육에 참가한 불자들의 모습.

호국사찰 고성 옥천사, 해설사 양성나서

6월 4일 도슨트 양성교육 실시…매주 토요일 총 4차 진행

고성 옥천사(주지 종성)는 6월 4일 제2차 옥천사 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을 시작,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날 교육 개강에는 옥천사 주지 종성 스님, 청련암 감원 원명 스님, 김용태 불교학술원HK교수,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정선유 학예실장, 수강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성 옥천사에는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의승군을 조직해 왜군에 맞서 싸운 자방루 등이 남아있다. 당시 자방루 앞마당은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됐다.

옥천사 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은 호국사찰 옥천사를 포함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 승병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도슨트 양성교육과 연계하여 11월에는 강의를 맡은 강사진들이 집필을 맡아 의승군 관련 학술총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종성 스님은 "호국사찰인 고성 옥천사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스스로 의승군을 조직하여 왜군과 맞서 싸웠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의승군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용태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활동과 충의의 공적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 전환적인 계기"라며 "조선후기 사회에서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내소사 우암당 혜산 스님 17주기 추모재



전북지역 대표적인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7주기 추모재가 6월 4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문중 원로스님과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대우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도솔회, 석우회 스님,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 및 전등회 재가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14주기를 맞아 동참해 주신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가행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암당 혜산 스님은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사 주지, 내소사 회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2005년 6월 13일 내소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